

玉洞 李滉와 星湖 李瀼의 比較를 통해 본 星湖家 詩世界の 一 樣相^{*}

尹載煥^{**}

|| 차례 ||

- I. 序論
- II. 玉洞과 星湖의 文學論 比較
 - 1. 經典 中心의 古道 追求
 - 2. 道文一致의 經世文學論
- III. 玉洞과 星湖의 創作論 檢討
 - 1. 隨時得宜의 時變과 變通
 - 2. 寫眞의 寫實的 創作論
- IV. 玉洞과 星湖 詩世界の 一 樣相
- V. 結論

【국문초록】

玉洞 李滉(顯宗 3년~景宗 3년, 1662~1723)는 梅山 李夏鎭의 다섯 아들 중 前配인 贈貞婦人 龍仁李氏 留守 後山の 따님에게서 태어난 세 아들 중 세 번째이다. 星湖 李瀼(肅宗 7년~英祖 39년, 1681~1763)은 매산 이하진의 다섯 아들 중 後配인 安東權氏 權大後의 따님에게서 태어난 두 아들 중 막내이다. 옥동과 성호는 매산 이하진의 다섯 아들 중 셋째와 다섯째로 19년의 나이 차이가 난다. 형제 사이로는 적지 않은 나이차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사이는 나이차이만큼 멀고도 또 가까웠다.

옥동이 부친 매산과 20년을 같이 보냈던 반면, 성호는 불과 8개월만을 그것도 유배지에서 서 부친과 함께할 수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부친을 통해 가학을 전수받지 못한 성호는

* 이 연구는 2011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의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檀國大學校 國語國文學科

그의 형들을 통해 학문을 익힐 수밖에 없었고, 둘째 형인 섬계 이잠과 셋째 형인 옥동 이서를 통해 가학을 익혔지만, 성호의 학문세계 형성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은 셋째 형인 옥동 이서였다. 그런데 옥동은 이전까지 그의 가문 안에서 전해지던 가학 전통에 강한 자극과 충격을 주는 변화의 시작점이었다. 옥동 이전까지 그의 가문은 문학으로 聲價를 얻었던 文翰家였는데, 이 가문의 학문 경향이 옥동에 의해 經學 중심으로 변화되었고, 옥동은 문학 중심의 가학 전통을 경학 중심으로 전환시켜 성호에게 전했다고 보인다.

그러나 옥동이 문학 위주의 가학 전통을 바꾸었다고 하더라도 누대 내려온 가학 전통이 한 순간 바뀌기는 어렵다. 이 글은 여기에 주목하여 기획된 것이다. 星湖家の 전통적인 長處가 문학에 있었고, 성호 이후 성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던 혜환과 금대라는 두 인물이 모두 당대 文翰으로 이름을 떨쳤다는 점에서 星湖家 학문 전통 중 큰 줄기의 하나가 문학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그 문학 전통 안에는 이들 나름의 어떤 공통분모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리라 유추된다. 이 글은 星湖家 문학 속의 공통분모를 발견하여 이들의 문학적 공통점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해 星湖家라는 하나의 가문 속에 존재하는 가문의 문학적 특성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家學과 개인의 관계를 구체화 해 보고자 한다.

주제어 : 옥동 이서, 성호 이익, 문학론, 창작론, 시세계, 성호가

I. 序論

玉洞 李滉(顯宗 3년~景宗 3년, 1662~1723)는 字를 澄之, 號를 玉洞 혹은 玉琴山人이라 하고, 사후 息山 李萬敷의 건의에 따라 제자들이 올린 私諡를 弘道라고 한다.¹⁾ 그는 驪州李氏 가운데 고려조에 仁勇校尉를 지낸 校尉公 仁德을 시조로 하는 校尉公派의 19세손으로, 부친 梅山 李夏鎭의 다섯 아들 중 前配인 贈貞婦人 龍仁李氏 留守 後山의 따남에게서 태어

1) 李是鉉, 『弘道先生 行狀 草』, 『弘道先生遺稿』附錄, “會議私諡, 沈判書檀曰: ‘明道二字, 實合於先生, 而既有程明道, 則諡以正道爲宜.’ 李息山萬敷曰: ‘先生學問道德, 弘大斯道, 可以弘道爲諡.’ 衆皆從之.”

난 세 아들 중 세 번째이다. 星湖 李瀾(肅宗 7년~英祖 39년, 1681~1763)은 자를 自新, 호를 星湖라고 한다. 그는 부친 매산 이하진의 다섯 아들 중 後配인 安東權氏 權大後의 따님에게서 태어난 두 아들 중 막내이다.

옥동과 성호는 매산 이하진의 다섯 아들 중 셋째와 다섯째로 19년의 나이 차이가 난다. 형제 사이로는 적지 않은 나이차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사이는 나이차이만큼 멀고도 또 가까웠다. 옥동은 顯宗 3년(1662) 12월 초 3일 서울의 皇華坊 小貞洞에서 부친 매산 이하진이 35세 되던 해에 태어났다. 옥동이 태어났을 무렵 부친 매산은 비록 實職은 아니었지만 內侍敎官에 임명되어, 科擧와 관직에 대한 꿈을 한창 불태우고 있었다. 반면 성호는 肅宗 7년(1681) 10월 18일 부친 매산의 유배지인 平安北道 雲山郡에서 태어났다. 부친 매산은 성호 출생 1년 전 일어났던 庚申大黜陟으로 인해 大司諫에서 晉州牧使 左遷·罷職·官爵削奪·門外出送을 거쳐 그해 10월 2일 성호의 출생지인 평안북도 운산군으로 유배되었다. 그리고 성호 출생 이듬해인 숙종 8년 6월 14일 56세를 日記로 殞命하였다.

출생 당시의 상황뿐만 아니라 부친과 함께한 시간에서도 옥동과 성호는 비교되지 않는다. 옥동이 부친 매산과 20년을 같이 보냈던 반면, 성호는 불과 8개월만을 그것도 유배지에서 부친과 함께할 수 있었을 뿐이다. 이 글에서 옥동과 성호가 부친 매산과 함께 했던 기간에 주목하는 것은 그의 가문 안에 존재하는 학문 전통 때문이다. 성호의 家系에서는 先代부터 성호의 후대에 이르기까지 家系 외의 다른 스승을 찾아가 학문을 익히지 않고 族父와 家兄을 통해 학문을 익히는, 家學에 의한 학문 전수라는 학문적 전통을 지니고 있었다.

부친을 통해 가학을 전수받지 못했던 성호는 그의 형들을 통해 학문을 익힐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제일 큰 형인 靑雲 李瀾은 성호가 태어나기 8년 전 운명하여 성호가 직접 접할 수조차 없었다. 따라서 성호가 가학을

전수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은 둘째형 剡溪 李潛과 셋째형 玉洞 李澈뿐이었다. 성호의 同腹兄인 넷째 鵝亭 李沈은 성호보다 겨우 10세 연상이었기 때문에 성호의 학문 형성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보인다.

성호는 둘째 형인 섬계 이잠과 셋째 형인 옥동 이서를 통해 가학을 익혔지만, 성호의 학문세계 형성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은 셋째 형인 옥동 이서였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둘째 형인 섬계 이잠이 성호가 25세 되던 해인 숙종 32년(1706) 禧嬪張氏의 소생인 元子 昉[景宗]을 扶持하여야 한다는 상소를 올렸다가 杖殺 당했기 때문이다²⁾. 성호는 어려서 몸이 약해 일찍부터 글을 배우지 못했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글을 익히지 못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10세 전후까지는 글을 익히지 못한 듯하다.³⁾ 성호가 학문을 시작한 시기와 섬계가 운명한 시기를 비교해 보면 성호가 둘째 형 섬계 이잠을 통해 가학을 전수받은 시기는 길게 잡아 15년 정도가 되고, 그 이후는 셋째 형 옥동 이서의 영향 아래 학문을 익혔다고 생각 된다. 이렇게 본다면 둘째 형 섬계 이잠에 의해 성호 학문의 기본 토대가 형성되었고, 그 토대 위에 옥동 이서가 성호 학문의 골격을 만들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성호 학문의 기본적인 형성과정을 이렇게 추정하였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섬계와 옥동이 성호에게 전해준 학문의 내용이다. 섬계의 학문 내용

2) 이 상소는 『剡溪先生遺稿』 乾(乾坤 2책본; 성호古3648-62-905)과 『剡溪先生遺稿』 (1책본; 성호古3648-62-907)에 「疏」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내용은 희빈장씨의 소생인 세자에 대해 노론의 宋時烈은 세자 책봉을 지연시켰으며 金春澤은 세자를 업신여길 뿐만 아니라 지위마저도 위태롭게 하고 있고 金鑣圭는 바로 전해에 세자가 숙종에게 進宴하는 것을 막고 있으며 또 張希載의 諺書 내용이 지극히 흉악하고 부도한데도 어떤 신하도 이를 언급하지 않는다는 등 당시 집권 세력인 노론계 여러 신하들을 거론하며 위협해진 세자를 보호해야 함을 역설하는 것이었는데, 이 상소 이후 섬계는 상소로 인해 杖殺되었고, 그의 가문은 累代 관직 진출에 제약을 받았다.

3) 李瀾, 「金執義鶴臯子墓碑銘」, 『星湖先生全集』 卷 65, “幼有奇才, 八歲已能成五字詩. 余年長數歲, 猶未知讀書, 每見之懷慙也.”

에 대해 확인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섬계에 대해서는 무어라 말하기 어렵지만, 옥동의 경우 이전까지 그의 가문 안에서 전해지던 가학 전통에 강한 자극과 충격을 주는 변화의 시작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옥동 이전까지 그의 가문은 문학으로 聲價를 얻었던 文翰家였다고 생각되는데⁴⁾, 이 가문의 학문 경향이 옥동에 의해 經學 중심으로 변화되었고,⁵⁾ 옥동은 문학 중심의 가학 전통을 경학 중심으로 전환시켜 성호에게 전했다고 보인다.

그러나 옥동이 성호에게 전해준 학문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지금 파악하기 어렵다. 옥동이나 성호의 문집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기

4) 『驪江世乘』을 살펴보면 옥동 가문의 가학 전통이 문학 중심이었던 사실은 쉽게 알 수 있다.

李尙毅, 『應教公 士弼 墓誌』, 『驪江世乘』 卷 4, “拜承政院注書, 例遷典籍, 諸承旨咸歎曰, 如公文筆, 不可多得, 右遷雖不可止, 恨不得久留也.”

李尙毅, 『僉正公 友仁 墓誌』, 『驪江世乘』 卷 4, “明廟釋喪, 大妃祔廟, 館學進歌謠, 公籍東庠掌其事, 應對明亮, 酬酢得宜, 年未弱冠, 覺堂動目, 一時士林, 皆自以爲不及也.”

李震休, 『少陵公 尙毅 家狀』, 『驪江世乘』 卷 5, “秋以東宮冕服奏請使, 如京師. 時李芝峯晬光爲副使, 芝峯文章士也. 以公居常謙恭, 不以翰墨自居, 故芝峯亦未深知. 至是與之酬唱, 大驚服曰, 少陵文章, 當代罕敵. ……公於詩律, 不事雕鏤, 自臻於妙綽, 有正始韻格, 談詩者, 以爲讀之, 可知其古人語也. 公於晚年, 悉取少時詩稿焚之曰, 文藝者末也, 何足示後, 故有詩集, 如干編刊行.”

李瀾, 『持平公 志安 行狀』, 『驪江世乘』 卷 8, “文詞典雅, 乃曰, 吾家恥以文人得號, 安用此爲. 故篋衍無留, 後輯得近體詩若干篇, 藏於家.”

李瀾, 『先考司憲府大司憲君行狀』, 『星湖全集』 卷 67, “公生有異表, 額上有文曰文. 目炯炯夜能辨細字, 氣魄充完, 嘗視族人之病鬼祟者, 輒輒避. 記性絕人. 然亦不恃才而自怠, 對卷必以熟深沛然爲度. 故至于衰晚, 猶背誦甚多. 爲詩不屑爲組織之工, 下筆源源, 頃刻累數篇. 或問詩應曰, 詩以欲解未解間爲高. 蓋爲言語可造, 而眞賞難諭也.”

5) 李是鉉, 『弘道先生 行狀 草』, 『弘道先生遺稿』 附錄, “嗚乎. 吾家性理之學, 實自先生冊始之. 星湖先生親炙其門, 而大闡斯文, 貞山公萬頃公木齋公可山公, 又皆親炙於星湖而成德, 例軒公錦帶公柿軒公, 皆私淑於家學而成道. 一變詞藻之習, 蔚爲詩禮之家, 溯其淵源, 則先生實有造端肇基之功云.”

때문이다. 그렇다면 옥동과 성호의 문집을 통해 이들 사이의 공통점과 유사점을 찾아 영향관계를 유추해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가질 수 있는 의문은 옥동이 문학 중심의 가학 전통을 경학 위주로 바꾸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의 글에서 문학에 관한 어떤 것을 찾을 수 있느냐는 것과 찾을 수 있다면 그 성격은 어떤 것이냐는 것이다. 이것을 문제 삼는 이유는 옥동이 비록 문학 위주의 가학 전통을 바꾸었다고 하더라도 누대 내려온 가학 전통이 한 순간 바뀌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서이다.

옥동은 62세를 일기로 생을 마칠 때까지 12권의 방대한 문집⁶⁾ 속에 모두 1,300여 수의 詩와 260여 편의 雜著를 비롯한 다양한 형식의 다채로운 글을 남겼다. 문집 속 시의 양은 옥동이 아무리 경학 중심의 학문관을 지니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옥동에게서 문학을 배제할 수 없게 한다. 성호 역시 72권 36책의 방대한 문집 속에 38세부터 82세까지 창작한 1,178수의 시를 남겼다.⁷⁾ 옥동과 성호의 문집 속 시의 양은 이들이 비록 경학을 전공한 經世家, 經學家였다고 하더라도 이들에게 문학이 상당한 의미로 작용하였음을 보여준다.

이 글은 여기에 주목하여 기획된 것이다. 星湖家の 전통적인 長處가 문학에 있었고, 성호 이후 성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던 愼軒과 金大라는 두 인물이 모두 당대 文翰으로 이름을 떨쳤다는 점에서 星湖家 학문 전통 중 큰 줄기 하나가 문학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그 문학 전통 안에는 이들 나름의 어떤 공통분모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리라 유추된다. 이 글은 星湖家 문학 속의 공통분모를 발견하여 이들의 문학적 공통점을

6) 성호에 따르면 최초 옥동의 문집인 『弘道先生集』은 모두 10권이었던 듯하나(李瀼, 「弘道先生遺稿序」, “於是題門人合聚遺稿, 爲弘道先生集十卷, 屬余序之.”) 현재 전하는 것은 모두 12권이다. 이로 보아 현재 전하는 문집은 후대 증보된 것이라 추정되지만 자세한 것은 현재까지 확인할 수 없다.

7) 이 수는 한국문집총간 내 『星湖全集(198~200)』 속에 수록된 시의 양이다. 성호의 시가 이것으로 전부인지는 앞으로 더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구체화하고자 하는 연속 작업의 하나이다. 이와 같은 연속 작업을 통해 星湖家라는 하나의 가문 속에 존재하는 가문의 문학적 특성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家學과 개인의 관계를 구체화 해 보고자 한다.

II. 玉洞과 星湖의 文學論 比較

성호는 30권 30책의 『星湖僊說』을 통해 그의 문학관을 가감 없이 밝혀 놓았다. 그는 5가지 門으로 분류한 『성호사설』에 「詩文門」을 별도 항목으로 둘 정도로 문학의 가치를 적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 전체 3,007 항목 중 378 항목이 「시문문」에 해당하는데, 주로 중국과 우리나라 문인의 시와 문장에 대한 평으로 대부분이 시문의 교감과 詩語나 詩句의 고증 내지는 변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달리 옥동은 자신의 문집에서 가급적 문학에 관한 언급을 피하고자 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그의 문집 속에 있는 263題 265篇의 잡저 중 문집 권 7의 「論言與文詩」·「詩體」, 권 8의 「非雕虫文章家」·「論文體」·「論古人詩格」, 권 9의 「論作文」이 6편이 그의 문학에 관한 인식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글의 전부이다. 이 글에서는 옥동의 문집 속 6편의 글과 성호의 『성호사설』을 기본 자료로 하여 두 사람의 문학과 창작 방법을 추출하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1. 經典 中心의 古道 追求

옥동의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그의 기본적인 문학론은 복고주의다. 옥동의 생존 시기였던 17세기 중반부터 18세기 초반까지 우리나라의 문단을 휩쓸고 있었던 기본적인 문학사조로 明代 前後七子에 의해 유도된 복고주의를 들 수 있는데, 옥동의 문학론도 근본적으로 이 복고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보인다.

복고주의의 기치를 가장 높이 치켜든 明代 後七子의 대표 주자 李夢陽이 주장한 “文隨世變 代不如前”의 사상은 古道와 古學은 그 자체로 완벽한 것이고, 그 완벽한 古道와 古學의 추구는 道와 文이 일치될 때 이루어진다는 道文一致의 尙古의 文學論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또 그는 이와 같은 문학론을 실행하기 위한 학습 방법으로 “文必秦漢 詩必盛唐”을 추구하였고, 樂府·歌行과 古詩에 주목하였다.

명대 전후칠자의 복고주의에 경도된 당대 우리나라의 문단은 盛唐의 詩와 秦漢의 文을 최상의 경지로 생각했고, 이를 익히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복고적 경향은 현재의 가치를 부정하고 과거로의 회귀를 지향하는 것이다. 옥동이 그의 글을 통해 현재를 부정하고 과거로의 회귀를 지향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앞에서 밝힌 것과 같이 그의 문학론은 기본적으로 복고주의와 같은 軌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복고주의는 당대의 일반적인 복고주의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

심하구나. 문장가가 세상을 현혹함이며. 심하구나. 문장가가 도를 해침이며. 물정에 깊고 골계를 잘하며, 뜻을 씀이 기교하고 문장이 청신하니 사람들이 보면 곧 기뻐하고, 기뻐하면 곧 빠져들며 빠져들면 그것에 융화된다. 이 때문에 문장이 있는 것은 알지만 경전이 있는 것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읽지 않는 것이고, 읽지 않기 때문에 궁구하지 않는 것이고, 궁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는 것이 없다. 얻지 못하니 싫어하고, 싫어하니 업신여기고, 업신여기니 배척하는 것이다. 옛 사람들이 佛·老學의 잘못을 바로잡아 놓았으니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도를 어지럽힌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그러나 문장에 이르러서는 비록 大賢이라도 혹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법을 좋아하고 성인의 경전을 싫어하는 것이다. …… 사마천의 학문은 오로지 권모술수와 이해득실을 이용하였으니 심하구나 사마천의 잡된 것이여. 그 文法을 『繫辭傳』에서 조금 얻었으나 老莊에 빠져, 말을 세운 것이 조

리가 없고 화려한 수사가 지나쳐 지리하고 산만하여 심히 경전의 뜻이 아니다. 후세 사람으로 스스로 사마천을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章句와 文字만을 배울 뿐이고 篇法의 요령조차 배운 자가 없었다. 이백은 장주에게서 風格을 조금 얻었으나 鄭聲과 衛聲에 빠져 淸虛境을 습관으로 삼아 방탕하여 조리가 없으니 가려내어 보는 것이 옳다. 한퇴지의 식전은 높으나 대체로 밝지 못하다. 그 문장도 비록 스스로 『상서』와 『맹자』를 닮았다고는 하나 宗法을 잃어버렸고, 노장과 사마천의 기습이 있다.⁸⁾

이 글을 보면 옥동이 명대 복고파가 최고의 典範으로 삼고 있었던 秦漢의 대표적 작가인 사마천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옥동은 당대 최고의 典範으로 추앙받던 사마천을 비판하며 그의 글이 권모술수와 이해득실을 이용하였으며 잡되다고까지 했다. 문장에서 사마천을 비판했던 옥동의 의식은 시에서도 이백을 비판하며 그대로 반복된다. 이백의 시에 대해 방탕하고 조리가 없다고 했다. 이와 같은 당대 최고의 典範에 대한 비판은 누구에게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옥동이 이와 같은 당대 최고의 典範들을 비판한 이유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옥동이 이들을 비판한 이유는 그들의 글이 경전의 뜻이 아니기[甚非經意] 때문이다. 즉, 당대 최고의 典範으로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옥동이 보기에 경전에 근거하지 않고, 경전을 닮지 않았을 경우 잘못된 것이고 따

8) 李激, 『非雕虫文章家』, 『弘道先生遺稿』 卷 8 『雜著』, “甚矣, 文章家之惑世也. 甚矣, 文章家之害道也. 深於物情, 善爲滑稽, 用意奇巧, 文華淸新, 人見則悅, 悅則溺, 溺則化. 是故, 知有文章, 而不知有經傳. 不知故不讀, 不讀故不究, 不究故無得, 無得惡之, 惡之侮之, 侮之斥之. 古人正佛老之非, 稍有智識者, 已知其亂道也. 至於文章, 雖大賢亦或有此習. 是故, 人信而不疑, 不疑故, 喜此法, 而惡聖經也. …… 馬遷之學, 專用權謀利害, 甚矣, 馬遷之雜也. 其文法, 稍得繁辭. 然淫於莊老, 立言無倫, 詞華太溢, 支離汗漫, 甚非經意. 後世之人, 有自謂學馬遷者, 但得其章句與文字而已, 未有得其篇法之要領. 李白稍得風體於莊周, 淫於鄭衛, 淸虛爲習, 放蕩無倫, 擇焉可也. 韓退之識見高, 然多不明. 其文章, 雖自謂效尙書孟子, 失其宗法, 有老莊馬之習.”

라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에 마땅한 것이었다. 위의 글을 보면 그가 한퇴지의 문장을 비판한 것도 『상서』와 『맹자』를 닮았다고는 하나 宗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옥동의 비판은 위에서 인용한 글의 첫 부분에 나오는 문장가의 문장이도를 해친다[文章家之害道也]는 “文章害道論”에 근거한 것이다. 그는 문집 권 8 「雜著」의 「論老子兼論莊子」에서도 “경전은 도를 싣는 그릇이고, 문장가는 도를 어지럽히는 그릇이다[載道之器, 文章家, 亂道之器]”라고 했다. 옥동의 이와 같은 주장은 그가 경전을 문장 창작의 기준에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옥동은 성현의 본뜻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 경전이기 때문에 문장의 典範은 經典이 되어야 한다고 여긴 것이다.

옥동이 古道와 古學을 추구했다는 것은 다양한 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⁹⁾ 특히 그가 주목했던 것은 儒家의 성현들에 의해 저술된 경전이였다.¹⁰⁾ 이런 점으로 보아 그의 복고주의는 명대 전후절자의 복고주의라기보다 미수 허목 이래 이어져 내려온 근기 남인계열의 전통적인 尙古主義와 보다 가깝게 이어져 있다고 보인다. 六經과 諸子百家를 바탕으로 『詩經』과 『文選』을 중시하는 태도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당대 근기 남인계열에서 學詩의 典範으로 숭상하고 있었던 杜甫까지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¹¹⁾에서 한층 더 완강한 상고적 관념을 보여준다. 그러나 다른 한

9) 李滉, 「詩體」, 『弘道先生遺稿』卷 8, 「雜著」, “西漢去古未遠, 故猶有上古之習, 猶有所可取也, 至于建安而古意亡.”

10) 李滉, 「玉洞先生 家傳」, 『玉洞先生遺稿』附錄, “其學忠信爲主, 步步趨趨, 維周孔程朱, 寧守師說而未達, 不顧小道之可觀. 業著書, 卷秩溢篋, 自心身, 以外至治家治民, 汎及於律曆之書, 甘石歧黃之術, 大小相銜, 本末兼該, 無不參互著明, 歸宿於六經四子, 爲安宅正路.”

11) 李滉, 「詩體」, 『弘道先生遺稿』卷 7, 「雜著」, “唐有王楊盧駱高王岑孟杜陳沈元李杜白韓韋數者而已, 其餘無足可取也. 太白過也, 杜白韓韋, 不及也. 太白虛而蕩, 子美刻而苦, 香山巧而俗, 昌黎鄙而野, 蘇州狹而弱, 靖節和而淡, 靖節工部清蓮, 最近於古. …… 太白尙風而失風, 流於虛放, 子美尙雅而失雅, 流於刻野, 無他, 不得於風

편으로 옥동이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문장가를 비판했다는 것은 그가 당대 사회에 미치는 문장의 가치와 영향력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뜻이 된다.

글에 의해 도를 깨치는 사람이 있고 글에 의해 도를 잃는 사람이 있다. 익힌 것에 의해 도를 깨치는 사람이 있고 익힌 것에 의해 도를 잃는 사람이 있다. 이것으로 살펴보면 言語 文字의 학습은 조심스레 가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말을 삼가지만 글은 조심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글은 삼가지만 말은 조심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 모두 잘못된 것이다. 시를 짓는 것은 언어와 문자로 형용할 수 없는 것 때문이다. 반복하여 형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을 조리고 완미하는 사이에 그 말 밖의 뜻을 터득하여 그 오묘한 뜻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군자의 동작 하나, 말 하나가 모두 사람의 師表가 되니 조심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군자는 시를 지을 때 비속하고 황당한 말을 사용하지 않으며, 터럭 하나만큼도 예에 맞지 않는 것을 자기에게 더하지 않고, 또 사람들이 이 습관 때문에 잘못된 것을 익힐까 두려워하는 것이다. 허탄하고 천박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하고 글을 짓는 사이에 혹 이런 것들을 끌어다가 구실로 삼아 잘못된 것을 꾸미니 예의 실상에 관계되는 것이라 또한 중한 것이 아니겠는가.

옛 사람들이 시를 통해 그 기풍을 본다고 한 것은 시가 뜻을 말하는 것이니 시를 통해 그 사악하고 바른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이 사람이 바르다고 하나 불경한 말을 써서 글을 짓고 시를 쓴다면 보는 사람이 어찌 그 사람에게 불경한 짝이 없다는 것을 알겠는가. 만약 이 말이 옳지 않다 하고 반드시 불경한 어법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시를 보고 기풍을 안다는 뜻이 무엇을 근거하여 시행되었는가.¹²⁾

雅之道，而橫馳故也。若使如此之資，得聞大道，則亦庶幾矣。”

- 12) 李激, 『論言與文詩』, 『弘道先生遺稿』卷 7, 『雜著』, “或有因文而悟道者, 或有因文而喪道者, 或有因習而悟道者, 或有因習而失道者. 以此觀之, 則言語文字之習, 不可不謹擇也. 或有謹於言而不謹於文者, 亦有謹於文而不謹於言者, 俱不可也. 詩之作, 由於不能以言語文字形容者, 反覆而形容之, 使人於吟咏翫味之間, 得其言外之旨,

이 글을 통해 옥동이 생각하고 있었던 詩文의 가치와 영향력을 알 수 있다. 옥동에게 詩文은 당대 사회를 살펴볼 수 있게 해주는 기준의 하나가 아니라 당대 사회를 이끌고 교육하는 도구로 인식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詩文을 짓는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당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이었고, 중요한 것이었다. 따라서 옥동이 생각하기에 詩文의 창작은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시문의 언어나 표현 방법 역시 비속하거나 황당한 또는 비루하거나 천박한 것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옥동은 詩文의 창작 기준, 문학의 기준을 儒家의 성현들에 의해 저술된 經典에서 찾았다고 생각된다. 옥동의 이와 같은 문학론을 “經典 中心의 古道 追求”로 정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2. 道文一致의 經世文學論

성호의 문학론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선행 연구가 나와 있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자들이 성호의 문학론에 대해 논하고자 할 때 인용하는 글이 아래에 있는 『성호사설』 속의 「不恥下問」과 「有教無類」이다. 이 두 편의 글을 예시로 성호의 문학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성호의 문학론이 그만큼 확고한 載道論에 근거한 것이라는 뜻이다.

文이란 道가 머무는 곳이다. 위에서 나타나는 日月과 星辰은 天文이라고 하고, 아래에서 나타나는 산천과 초목은 地文이라고 하고, 이 둘 사이에서 나타나는 禮樂刑政·儀章度數는 人文이라고 한다. 『주역』에서 “인문을 보아

以達其奧妙之旨也. 君子之一動一言, 皆爲人師表, 不可不謹也. 故君子作詩, 不用鄙悖荒唐之言, 不欲以一毫非禮加乎己也, 且恐人之因此習而誤入也. 虛誕鄙悖者, 言語詩文之間, 或引而籍口以飾非, 禮之實所關, 不亦重乎. 古人以詩觀風者, 詩能言志, 由詩而知其邪正故也. 雖是正人也, 以不經之言, 掇篇與句法, 則觀之者, 安知其有不經之萌孽乎. 若曰, 此言不是, 必欲用不經之語法, 則觀詩知風之意, 何據而施也.”

천하를 조화하고 이룬다.”는 말이 바로 이것이다.

聖人は 여러 가지의 절도를 꼭 이치에 맞도록 하고, 천하를 바른 길로 통솔하기 때문에 “글로 가르친다[文教].”고 했는데, 文王이 그러했던 분이다. 孔子께서 지위를 얻지 못했어도 오히려 목탁이 되어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道가 다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다. 그래서 “文이 여기에 있지 않느냐?[文不在茲乎]”고 하셨으나 그 뜻은 역시 슬프고도 간절한 것이다.

그러나 아주 가까운 것은 지적해서 깨우칠 수 있고, 조금 먼 것도 이야기로써 전할 수 있지만, 백 세대 뒤에는 그 뜻이 모두 없어지게 된다. 이 때문에 옛사람이 문자를 만들어서 후세 사람에게 거듭거듭 타일려 가르쳐, 이 글로 인해 道를 깨닫도록 하였으니, 이것도 역시 文이라는 것인데 이 문이란 도의 그림이다.¹³⁾

생각해 보면, 주나라 말기에 文이 편중되었으니, 문이 편중되면 質이 깎이고 질이 깎이면 허위가 자라남과 동시에 실질적인 공이 묻히게 된다.

가르침에 類를 둔 것은 문의 末弊이다.殷나라 사람들은 질을 숭상하여 문이 오히려 번성하지 못했으니 그 기풍은 실로 탕임금으로부터 유래하였다. …… 漢나라가 천하를 얻자, 다스리는 이치도 돌고 돌아서 文을 버리고 忠으로 돌아와 사람으로써 다스림을 구하고 능력으로써 사람을 선택했다. 공명대신들이 대부분 幹吏나 書佐로부터 승진하였으니 그 의의가 역시 위대한 것이다.

文이란 무엇인가. 질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니, 威儀·度數의 불 만한 것이 이것이다. 문에 편중된 주나라도 오히려 자기 일신의 행동으로 말하였는데, 晉·宋·齊·梁·陳·隋나라를 거쳐 唐나라에 이르자, 문의 폐단이 극도에 달했다. 처음에 문은 道를 싣는 그릇이라고 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13) 李瀲, 『不恥下問』, 『星湖僊說』 卷 21, “文者道之所寓也. 著於上則日月星辰, 謂之天文, 著於下則山川草木, 謂之地文, 著於兩間則禮樂刑政·儀章度數, 謂之人文. 易曰‘觀乎人文, 化成天下’, 是也. 聖人品節得中, 率天下而歸正. 故曰‘文教’, 文王是也. 孔子不得其位, 而猶木鐸徇路, 或庶幾不盡喪於世, 故曰文不在茲乎, 其意亦悲且切矣. 然近則可以指喻, 遠猶可以言傳, 百世之下, 其意將泯. 故古之人作爲書字, 諄諄反覆以告未來生靈, 庶幾因此而有得, 亦謂之文, 文者道之畫也.”

그릇만을 취하고 그 실는 것은 잊었으며, 끝에 가서는 그 그릇만을 쓰고 그 실는 것을 바꾸어버려, 駁雜·淫穢·荒誕·怪奇한 물건을 문이라 잘못 알고, 또 간간이 5~7言의 장단편 시와 詞나 律과 같은 것으로써 세상을 현란하게 하였으니, 이에 이르러 천하의 어지러움이 극도에 이르렀다.¹⁴⁾

성호의 문학론은 조선 후기 근기 남인계열 작가들의 일반적인 문학론과 같이 전통적인 載道論的 文學論이다. 성호가 제도론적 문학론을 주장한 것은 문학을 시대의 혼란과 사회의 어지러움을 바로잡는 도구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문학론은 道文一致의 載道論的 文學論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문학의 최우선 과제로 효용성을 들었고, 문학 창작의 기본 전범으로 六經과 古文을 상정하였다.

물론 육경과 고문을 기본으로 교화를 추구한 성호 문학의 효용론은 개인의 내면 수양을 위한 개인적인 차원의 효용이 아니라 사회를 바로잡는 사회 교화라는 대 사회적인 차원의 효용성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전 시기의 문인들이 주장했던 효용론과는 일정한 거리를 지닌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문학의 효용성에 대한 인식은 성호만의 것이라기보다 당대 정치적 곤경에 처해 있었던 근기 남인계열 문인들의 공통적인 인식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선 후기 당대 현실 정치에 대한 강한 욕구를 지녔던 이들이 경신대출척과 이어진 갑술환국으로 정치권에서 배제된 뒤 가지게 된 현실에 대한

14) 李瀾, 『有教無類』, 『星湖僊說』 卷 25, “想周末文勝, 文勝則質削, 質削則虛僞長而實功埋也. 教之有類, 文之未弊也. 殷人尙質, 文猶未熾也, 其風之所自, 實成湯爲之…… 漢之得天下, 治理循環, 祛文反忠, 求治以人, 擇人以能, 其功名大臣, 多自幹吏·書佐, 其義亦偉矣. 文者何也. 質之見於外, 凡威儀·度數之可見者是也. 周之文勝, 猶以身己事言, 晉·宋·齊·梁·陳·隋至唐, 弊極矣. 始謂以載道之器, 俄而取其器而忘其載, 終焉用其器而貳其載, 駁雜·淫穢·荒誕·怪奇之物, 而誣之爲文, 又間以五七言長短篇·詞律之類, 眩耀之, 於是天下之亂極矣.”

불만 표출과 불만의 극복 방안으로 문학이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이들의 문학론이 보여주는 재도론적 효용론은 당대 사회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미수 허목이 六經·古文을 기준으로 道文一致의 載道論을 주장한 이후 이와 같은 문학론은 조선이 끝날 때까지 근기 남인계열 문인들의 보편적인 문학론이 되었다.

성호의 문학론을 이렇게 정리하였을 때 옥동과 성호의 문학론이 어떤 동이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공통점을 들어보면 옥동과 성호 모두 당대 사회에 미치는 문학의 가치와 영향력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문학의 가치와 영향력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했기 때문에 이들은 道文一致의 載道論을 추구하였고, 經世의 效用論을 주장하였다고 생각된다. 이들이 설정한 문학의 典範도 六經에 근본한 聖賢의 經典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문학을 대하는 태도에서 옥동과 성호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다. 옥동은 성호보다 더 완강하고 엄격하게 문학을 규제하고 있다.

문학을 규제하고자 하는 옥동의 태도는 문학을 대하는 옥동과 성호의 자세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옥동이 상소로 인한 부친 매산과 둘째 형 섬계의 죽음을 목도했기 때문에, 혹은 부친 매산의 운명 이후 抱川의 淸涼浦에 은거하여 세상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성호에 비해 문학에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였는지, 아니면 성호가 옥동에게 수학한 이후 다시 眉叟와 退溪, 栗谷과 礪溪를 私淑하였기 때문에 옥동보다 문학을 자유롭게 대할 수 있었던 것인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단언하기 어렵다. 다만 이 자리에서는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옥동과 성호의 문학론은 기본적으로 같은 것이었지만, 문학을 바라보는 자세에서 옥동이 성호보다 훨씬 더 엄격하였고, 그것은 옥동이 성호보다 문학의 영향력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Ⅲ. 玉洞과 星湖의 創作論 檢討

1. 隨時得宜의 時變과 變通

古道와 古學을 추구하여 儒家의 성현들에 의해 저술된 經典을 최고의 典範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옥동이었지만, 옥동의 창작론은 擬古나 復古와는 다른 방향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그의 창작론은 문학론과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옥동이 성현을 전범으로 삼되 擬古나 復古를 부정한 것은 문학의 현재적 가치와 영향력에 대한 분명한 認知에서 비롯된 것이라 보인다. 완고한 尙古의 의식을 지니고 있었지만, 상고에 치중한 문학의 현실적 한계를 고려해 본다면 옥동의 태도는 古道の 부활을 위한 방편적 의미를 강하게 지닌다.

옥동의 태도는 韓愈를 중심으로 한 唐宋古文家들이 古文을 모범으로 삼아 창조적인 문장을 구사하자고 주장한 古文運動과 유사한 모습이라거나 옥동의 바로 앞 시대 인물인 許筠에 의해 주장된 擬古文을 반대하는 古文理論, 즉 今古文理論과 일견 유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문체란 어떤 것인가. 자신이 겪게 된 상황에 따라 문자를 엮어서 형체를 만드는 것을 문체라고 한다. 후인들은 이것을 몰라 운용을 하지 못하니 이와 같다면 通變을 다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혹 그 겪게 된 상황에 따라 하나의 體格을 만든다고 해도 또한 무방할 것이다. 무릇 글을 짓는 體格은 성인의 딱 들어맞는 뜻이 아니라면 비록 주공과 같은 아름다운 재주에 자공의 언어와 자하의 문장을 겸하여 가지더라도 지나치거나 부족한 차이가 없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헤아리지 못하고 망령되게 짓는 것을 自用이라고 한다.

공자님께서 “저술하되 창작하지 않는다. 옛 것을 좋아하고 민첩하게 구한다.”고 하신 것은 배우지도 않고 성현을 업신여기는 자들을 경계하신 것이다. 自用은 진실로 본떠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성현의 본뜻은 알지 못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단지 문자에만 의지하여 따라한다면 동쪽 마을의 주녀가 되지 않을 사람이 드물 것이다.

만약 이 편에서 이 문자를 사용하고 다른 편에서 또 쓴다면 이 문자만을 쓸 줄 알 뿐이다. 겪게 된 상황이 다르면 쓰는 말이 다른 법인데 앞으로 어떻게 그 말을 세운 기세에 따라 짐작의 묘를 다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拘泥라고 하는데, 그대에게 해당되지 않으니 중도를 쥐지 않겠는가.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가 비록 옛것을 법도로 삼기를 좋아하나 또 본뜨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니 그 한 가지만을 고집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성현의 법을 법칙으로 삼고, 성현의 뜻을 체득하여 작용도 없고 본뜨는 것도 없다”고 하니 이것을 중도를 얻었다고 한다.¹⁵⁾

이 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옥동의 태도는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옥동이 추구한 古道の 회복이나 經典의 典範이 경전의 模倣이나 擬古, 復古를 의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 옥동이 비판한 것은 ‘自用’과 ‘拘泥’였다. ‘自用’이란 자신의 능력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글을 짓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拘泥’는 하나의 전범에 얽매어 변통할 줄 모르는 것을 말한다. 옥동의 말과 같다면 문학 작품의 창작에서 중요한 것은 전범의 학습을 통한 창조가 된다. 이와 같은 의식을 옥동은 이 글에서 ‘通變’이라고 했는데, ‘通變’은 성현의 법을 법칙으로 삼고, 성현의 뜻을 체득

15) 李激, 『論文體』, 『弘道先生遺稿』卷 8, 『雜著』, “文體如何. 因所遇, 結構文字, 成其形體, 謂之曰文體. 後人不知, 着於一法, 不能運用, 若此則無以盡通變. 若有人或因其所遇, 作一體格, 亦無妨也. 凡作文之體, 非聖人適中之意, 雖有周公之才之美, 兼以子貢之言語, 子夏之文章, 不能無過不及之差. 故不自量而妄作爲, 謂之自用. 子曰, 述而不作, 好古, 敏而求之者也, 所以戒夫不學而侮聖賢者也. 自用, 固不可依樣, 亦不可不知聖賢之本意. 只依文字而效嚙, 則不爲東隣之醜女者, 鮮矣. 設令此篇, 用此文字, 他篇又用之, 只知用此而已. 則所遇不同, 遣辭有異, 將何以因其立言之勢, 盡其斟酌之妙乎. 此之謂拘泥. 不幾於子, 莫之執中乎. 人之言曰, 余雖樂乎法古, 亦不樂乎依樣, 惡其執一也. 人之言曰, 則聖賢之法, 體聖賢之意, 無作用, 無依樣, 此之謂得中.”

하여 작용도 없고 본뜨는 것도 없는 중도의 상태[則聖賢之法, 體聖賢之意, 無作用, 無依樣, 此之謂得中]를 의미한다. 이렇게 본다면 옥동의 창작론은 한유에 의해 창도된 당송고문파의 고문운동이나 허균 등에 의해 주장된 금고문운동과 흡사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글을 짓고 말을 하는 법은 옛 것을 근거로 지금을 헤아려서 때에 따라 마땅함을 얻는 것이 옳다. 지극한 이치를 요약해 말하여 그 묘체를 움직일 때는 절로 고인의 體格이 있지만, 반복하여 자세히 말하고 어리석은 풍속을 일깨울 때에는 절로 근대의 體格이 있는 것이다. 옛 것으로 할 만하면 옛 것으로 하고, 요즘 것으로 할 만하면 요즘 것으로 하는 것은 내가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때를 따라서이다.

선왕의 도를 따르지 않으면 도가 아니고 현재의 세상에 살면서 옛날의 도를 돌이킨다면 適中이 아니라 재앙을 가지고 온다. 요즘 사람을 대하여 고어로 말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우리나라 사람을 대하고서 중국어를 말하는 것과 같으니 통할 수 있겠는가.

언어와 문장은 도체를 형용하고 밝히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요즘 사람들을 대하고 고어를 말하는 것은 實理를 알지 못하고 한갓 고어를 숭상하는 것뿐이니 이것은 글을 숭상하고 기이한 것을 좋아하는 것이지 도덕이 되는 것이 아니다. 도덕이 아닌데도 헛된 글을 하는 사람은 고인의 도를 모르는 것이다. 비록 체를 본받고 싶어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는가. 그 본의와 정신을 얻지 못하는 것을 비유하자면 시골 사람이 京師를 본받는 것과 같으니 속되지 않으면 속이는 것이고, 망령되지 않으면 괴이한 것이고, 비루하지 않으면 허탄한 것이다. 이것은 후대의 虛僞의 글이다. 이런 소견을 가지고 고인을 망령되이 논하니 불가하지 않은 것이 없다.¹⁶⁾

16) 李滉, 『論作文』, 『弘道先生遺稿』卷 9, 『雜著』, “作文言語之法, 證古酌今, 隨時得宜可也. 約言至理, 鼓動其妙, 則自有古人之體. 反覆詳說, 曉喻愚俗, 則自有近代之體. 可古則古, 可近則近, 非我故爲也, 因其時也. 不由先王之道, 則非道也. 居今之世, 反古之道, 則非中而有災矣. 對今人而語古語, 譬如對我國之人, 而語中國之語, 其能通乎. 言語文章, 貴其形容道體而明之也. 對今人而言古語, 不知實理而徒尚古

이 글을 통해 옥동이 추구한 작법을 정리할 수 있다. 문학 작품의 창작에서 중요한 것은 전범과의 類似性이나 一致度가 아니라 “隨時得宜”를 통한 時變과 通變의 추구였다. 옥동이 시변과 통변을 추구한 이유는 適中의 妙體를 얻기 위해서였다. 옥동이 생각하기에 시변과 통변을 하지 못하는 막연한 擬古와 復古는 實理를 알지 못하면서 古語를 숭상하기만 하는 것으로, 기이한 것을 좋아하는 것일 뿐이지 고인의 도는 모르는 것이었다. 따라서 옥동이 추구한 진정한 문학은 “隨時得宜” 즉, “法古를 통한 創新”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렇게만 본다면 옥동의 창작론이 한유의 고문운동이나 허균 등의 금고문운동과 흡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옥동의 문학론을 살펴보기 위해 인용했던 다음의 글을 되새겨본다면 그렇게 간주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이 사람이 바르다고 하나 불경한 말을 써서 글을 짓고 시를 쓴다면 보는 사람이 어찌 그 사람에게 불경한 짝이 없다는 것을 알겠는가. 만약 이 말이 옳지 않다 하고 반드시 불경한 어법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시를 보고 기풍을 안다는 뜻이 무엇을 근거하여 시행되었는가.¹⁷⁾

옥동은 “隨時得宜”를 통한 時變과 通變을 추구하였고, “法古를 통한 創新”을 지향하였지만, 그 과정의 적절성에도 상당한 주목을 가했다. 時變과 通變을 추구하였지만, 시어의 선택과 사용이 모두 법도에 맞아야 한다는

語, 是尙文而好奇也, 非爲道德也. 不爲道德而虛文者, 不知古人之道, 雖欲效體, 何可得也. 不得其本意與精神, 則譬如鄉曲之人, 效京師矣. 不俗則詭, 不妄則怪, 不野則虛. 此後世虛僞之文也. 以此所見, 妄論古人, 無乃不可乎.”

17) 李激, 『論言與文詩』, 『弘道先生遺稿』卷 7, 『雜著』, “雖是正人也, 以不經之言, 掇篇與句法, 則觀之者, 安知其不有不經之萌孽乎. 若曰, 此言不是, 必欲用不經之語法, 則觀詩知風之意, 何據而施也.”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옥동의 창작론이 한유의 고문운동이나 허균 등의 금고문운동과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같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구현 양상에서 결코 같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時變을 하더라도 詩文의 언어와 句法이 雅正하고 體格에 맞아야 한다는 옥동의 주장은 어쩌면 時變을 불가능하게 하는 제약 조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창작론을 주장한 옥동의 의식은 시문이 원론적인 구호나 표어를 넘어 현실 속에서 의미를 가지고 기능하게 만드는 기본적인 원칙이었다고 생각된다. 이와 함께 옥동의 창작론은 옥동에게 영향 받은 星湖가 ‘寫眞을 통한 문학 작품의 현실성과 주체성’을 강조할 수 있게, 또 成호에게 영향 받은 惠實이 ‘眞의 강조와 추구’나 ‘奇에 의한 개성의 표출’을 주장할 수 있게 만든 바탕으로 작용했다고도 생각된다.

2. 寫眞의 寫實的 創作論

옥동과 같이 道文一致의 載道論的 文學論을 추구하고, 문학의 최우선 과제로 사회적 차원의 효용성을 강조했던 성호에게도 관념적이고 형식적인 문학 경향은 무엇보다 우선하여 배격해야 할 대상이었다고 생각된다. 특히 성호는 科文을 중심으로 격식에 치중한 高踏的인 문장을 철저하게 배격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의식은 성호에게 개성적이고 현실적인 문장, 실질적이고 주체적인 문학을 추구하게 만들었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성호는 문학 작품의 ‘實’을 강하게 추구하였다. ‘實’이란 구체적·물질적 대상을 의미하면서 나아가서는 추상적·관념적 대상까지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不實’에 대하여 誠實, 空想에 대하여 現實, 名目에 대하여 實質, 약한 것에 대하여 튼튼한 것, 빈껍데기에 대하여 알이 찬 속, 假에 대하여 眞, 未熟에 대하여 成熟 등의 하위 개념들을 포괄하고 따라서 인간·사물·역사·사회·문화·생활 등 전반에 걸쳐 모든 부정적 요소들과

換置하여 설정되고 실현되어야 할 긍정적 요소로서 가치를 갖는 것이다¹⁸⁾. 문학 작품의 창작에서 성호가 추구했던 ‘實’이란 대상의 탐색과 묘사의 진실을 의미하는데, 이를 위해 성호는 회화적 표현을 통한 묘사의 사실성을 추구했다.

고금의 문장을 나무에 비유한다면, 唐虞·三代之 문장은 여름에 꽃과 잎이 무성하여 한 가지도 말라붙은 것이 없이 모두 찬란해서 볼 만한 것과 같고, 秦·漢 시대의 문장은 가을-겨울 이후 꽃이 지고 열매도 떨어져 眞形만 그대로 있는 것과 같고, 후세의 문장은 丹青과 繪畫로써 모양을 그려낸 것은 비록 비슷하다 하겠지만 생생한 뜻은 꺾어버린 것과 같으며, 우리나라의 문장은, 시골의 화공이 실물은 보지 못하고 단지 전하는 모습만을 본떠서 비슷한 것 같지만, 복숭아나무에다 버드나무 가지·살구나무 잎·아가위나무 꽃을 그려서 둥글고 곧은 것이 실물과 다르고 붉고 푸른 것이 기준이 없으므로 결국 무슨 물건인지 알 수 없는 것과 같다.¹⁹⁾

소동파의 시에, “그림을 그릴 때 겉모습만 같으면 된다고 하니(論畫以形似), 이런 소견은 이웃 아이와 같네(見與兒童隣). 시를 지을 때 겉개만 그려내는 것도(賦詩必此物), 시를 알고 짓는 이가 아니네(定非知詩人).”라고 하였다. 후세에 화가들은 이 시를 宗旨로 삼아 열은 먹으로 거칠게 그리니, 이는 그 본질과 어긋나는 것이다.

지금 만약 “그림을 그릴 때 겉모습은 비슷하지 않아도 되고, 시를 지을 때 같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말이 되겠는가? 우리 집에 동파가 그린 墨竹 한 폭이 있는데, 가지와 잎이 모두 산 대와 꼭 같으니 이것이 寫眞이란 것이다.

18) 宋寯鎬, 『朝鮮朝 後期四家詩에 있어서 實學思想의 檢討』, 『淵民 李家源先生 七秩 頌壽紀念論叢』, 정음사, 1987, 74면.

19) 李瀾, 『古今文章』, 『星湖僊說』 卷 30, “古今文章, 以壽木取比, 唐虞三代之文, 如方夏花葉極盛, 無一條枯槁而燦然可觀也, 秦漢之文, 如秋冬以後, 華實摧落而眞形自在也. 後世之文, 如丹青繪畫, 摸狀雖逼, 而生意颯爾也. 我東之文, 如鄉社畫師, 不見其物, 但憑傳摸 依倂彷彿, 桃山柳枝杏葉棠花, 圓穉違眞, 丹碧無準, 不審其何物也.”

精神이란 형체 속에 있는 것인데, 형체가 벌써 다르다면 정신을 제대로 전해 낼 수 있겠는가?

동파가 이렇게 시를 읊은 것은 대개 “겉모습은 비슷하게 되어도 정신이 나타나지 않으면 비록 이 물체는 있다 할지라도 광채가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내가 말하기를, “정신을 나타내되 형체가 같지 않다면 또 광채가 있어도 다른 물건이라면 어찌 이것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한다.²⁰⁾

성호의 주장은 대상의 세밀한 묘사를 통한 逼真한 형상의 재현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의식은 세밀한 대상의 묘사를 통해 대상의 형상을 재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상에 대한 작가의 이미지나 감정을 형상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성호는 대상의 객관성을 중시하여 대상과 작품 속에서 묘사된 경물간의 외형적인 일치를 지향하였다.

이런 의식 때문에 성호에게는 시 속에 형상화된 대상의 모습이 실재하는 경물의 모습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큰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와 같은 인식 태도는 인간은 반드시 감각을 통해서만 외물을 인식할 수 있고 구체적인 상을 통해서만 외물에 대한 감각을 전달할 수 있다는 인식론의 결과이다. 따라서 성호는 대상으로부터 촉발된 감정을 시 속에 노출시키기 보다 감정의 원인이 되는 대상을 직접 시 속에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경험과 정서를 독자들이 인식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런 창작 방법은 성호의 시를 시각적 이미지로 만들어 준다. 따라서 성호의 시에서는 율동감이나 리듬감보다 회화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와 함께 이런 의식은 성호에게 시의 소재와 대상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실제적이고 현실

20) 李瀼, 『論畫形似』, 『星湖僊說』 卷 5, “東坡詩云; 論畫以形似, 見與兒童隣, 賦詩必此物, 定非知詩人. 後世畫家, 得以爲宗旨, 淡墨皴畫, 與真背馳. 今若曰; 論畫形不似, 賦詩非此物. 其成說乎. 余有家藏東坡墨竹一幅, 一枝一葉, 百分肖似, 乃所謂寫真也. 神在形中, 形已不似神, 可得以傳耶. 此云者, 蓋謂形似而乏精神, 雖此物而無光彩也. 余則曰; 精神而形不似, 寧似光彩而他物, 寧此物.”

적인 것에서 구하게 만들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실제적이지 못한 소재는 묘사할 실체를 갖지 못하여 진실한 시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다.²¹⁾

이런 점에서 성호의 창작론이 옥동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선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호의 창작론이 옥동보다 더 구체적일 수 있었던 것은 성호의 생활 터전과 삶의 방식이 옥동과 달랐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물론 삶의 방식이나 생활 터전의 차이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부분이 있지만, 성호가 추구했던 ‘寫眞’이 “隨時得宜”가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성호의 창작론은 옥동의 창작론을 현실적 상황에 맞춰 발전시킨 것이라 생각된다. 성호의 창작론이 옥동의 창작론보다 많은 부분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 있다.

옛날 전쟁터를 조상하는 시문이 많으나, 또 비록 아무리 哀傷과 慘怛이 지극할지라도 性情의 본질에 방해되지 않아야 비로소 얻었다 할 것이다. 만약 음험하고 怪澁하기만 하다면 그 사람됨을 또 알 수 있다.

나의 집안 조카 아무개가 시에 능하였는데, 그의 절구에, “엇긴 피 파래져서 풀잎에 스며들고(血凝碧入草), 삭은 뼈 하얗져서 모래 되었네(骨爛白爲沙), 그늘지고 그늘진 가을비 속에(陰陰秋雨裏), 한밤중 환한 불빛 저게 뉘 집인가(夜火是誰家).” 하였는데, 읽어보면 사람에게 좋은 기상을 주지 못하더니, 그 사람은 마침내 오래 살지 못했다.

그리고 근세에 재상 아무개의 庶子가 글귀 하나를 남겼는데, “엇 물가 여원 달빛 호젓하고 깊은 곳에(古汀瘦月幽濛裡), 금갑이 반짝반짝 불 가운데 누웠구려(錦甲鱗鱗火中臥)” 하였으니, 이 사람 가슴속의 천만 가지 죄악을 이루다 말할 수 있겠는가.

그 후에 또 한 절구가 있는데, “정오가 다가오니 외론 마을 밥 짓는 연기

21) 윤재환, 「시론과 시세계의 상관관계-성호와 다산의 전가시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52집, 한민족어문학회, 2008. 194~195면.

오르고(孤村近午炊烟直), 하늘 예운 광막한 들 낙조가 가물거리네(曠野圍天落照危), 한 마리 말 가을빛을 가로 뚫고 달려가니(匹馬橫穿秋色去), 십 리라 평원에 서울이 바라보이네(平原十里望京師)”하였으니, 그 詩語는 공교롭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공손하지 못한 뜻이 엄연히 잠재한다. 그 사람은 마침내 죄로써 사형을 받았다.²²⁾

이 글에서 성호는 아무리 哀傷과 慘怛이 지극하다고 하더라도 性情의 본질에 해가 되지 않는 시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성호가 성정을 해치는 음험하고 괴상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문학의 가치를 저해하는 원인이라고 본 것은 앞서 살펴본 옥동의 글에서 옥동이 아무리 “隨時得宜”를 통한 時變과 通變을 추구하였고 “法古를 통한 創新”을 지향하였지만, 시어의 선택과 사용이 모두 법도에 맞아야 한다고 한 것과 같은 것이다.

옥동과 성호의 시어 구사에 대한 관념의 공통점은 비록 성호의 창작론이 옥동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며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이들의 의식세계가 동일한 울타리 안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설명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時變을 추구하지만 詩文의 언어와 句法이 雅正하고 體格에 맞아야 한다는 옥동의 주장이나, 대상을 세밀하게 묘사하여 逼真한 형상을 재현하고 이를 통해 작가의 이미지나 감정을 진실하게 형상화하고자 하지만 性情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시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한 성호의 의식 모두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옥동과 성호의 창작론이 擬古와 復古를 통한 尙古의 과거 회귀를 추구

22) 李瀾, 『弔古戰場詩』, 『星湖僊說』卷 28, “弔古戰場詩文多, 亦雖哀傷慘怛之極, 而亦不害於性情之本, 方得. 若陰險怪澁, 則其人又可知矣. 余族子某, 能于詩, 其一絕云; 血凝碧入草, 骨爛白爲沙, 陰陰秋雨裏, 夜火是誰家. 讀之令人氣像便不佳, 其人竟無年. 近世宰相某, 有庶孽子, 有一句云; 古汀瘦月幽邃裡, 錦甲鱗鱗火中臥. 此人胸中, 何限千罪萬惡. 後又有一絕云; 孤村近午炊烟直, 曠野圍天落照危, 匹馬橫穿秋色去, 平原十里望京師. 語非不工, 儼有不遜之意, 竟以罪誅.”

했던 당대의 일반적인 문학 경향보다 발전적이고 근대적이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寫眞”을 주장한 성호의 창작론은 옥동보다 몇 걸음 더 앞서 나가있는 것으로 바로 다음 세대 혜환의 “奇詭와 尖新”을 이끈 근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발전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의 선택과 구사에 관한 옥동과 성호의 주장은 이들의 문학론과 창작론이 다 같이 도덕적 사유세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는 經典 中心의 古道를 追求한 옥동이나 道文一致의 經世文學論을 주장한 성호 모두 문학의 본질적 기능으로 載道를 상정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IV. 玉洞과 星湖 詩世界の 一 樣相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통해 옥동과 성호의 문학론과 창작론이 기본적으로 같은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옥동이 보다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문학을 대했지만 문학에 대한 기본 인식에서는 성호와 다름없었고, 성호가 세부적인 창작론에서 옥동보다 발전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옥동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한계를 완벽하게 극복했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모습은 두 사람 사이의 상관성을 유추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한다.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옥동과 성호의 문학론과 창작론이 이들의 시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 두 사람의 시세계가 보여주는 양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옥동과 성호 시세계의 양상을 검토하고자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의 어떤 작품을 비교·검토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옥동과 성호의 시세계는 이들이 창작한 시의 수에 걸맞을 만큼 다양하고, 또 그 다양한 시세계를 구성하는 이들의 모든 작품이

동일한 수준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들의 어떤 시를 비교의 대상으로 삼느냐에 따라 드러나는 결과는 아주 큰 차이를 지닐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들의 시 작품 전체를 비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지만, 현재 필자의 역량으로는 이와 같은 작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선택적인 비교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선택의 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는데, 이 글에서 설정한 기준은 이들의 의식세계이다. 옥동과 성호는 형제로 서로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 사이였다고 생각된다. 물론 옥동이 성호의 학문세계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나, 성호 학문의 본질적인 모습이 옥동과 닮아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성호의 학문세계 전체를 옥동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은 성호가 옥동을 토대로 하여 스스로 자신의 학문세계를 확장하고 심화시켜 왔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점에서 옥동과 성호의 공통점은 보다 본질적인 부분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옥동과 성호의 본질적인 공통점은 이들 모두 학자, 특히 개인적 심성 수양을 모든 행위의 근본으로 삼는 유학자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옥동과 성호의 시세계에서 개인적 차원의 내면세계가 구체적으로 표상된 시들을 선별하여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이들의 문학론이 모두 경세적 효용론과 연관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한 시작품의 선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장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옥동과 성호의 시세계가 지니는 양상인 만큼 최대한 유사한 내용의 시를 선별하여 검토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曉天猶有月 새벽하늘에 아직 달 떠있고
乾坤混濶虛 하늘과 땅 뒤섞여 담박하고 여유로운데
閒中無雜事 그 사이 잡된 일 하나도 없어

靜坐念經書 조용히 앉아서 경서를 읊조린다.²³⁾

月明風不動 달 밝고 바람은 불지도 않고
天無一點雲 하늘엔 구름도 한 점 없는데
靜極含動意 고요한 그 끝에 움직이려는 뜻 있어
森然恍有聞 오싹하게도 놀랍게 들리는 것 있네.²⁴⁾

夜深群動定 밤 깊어 온갖 움직임 멈추어 쉬니
風月自悠然 바람과 달만 제 저절로 한가로운데
靜立西亭上 조용히 서쪽 정자 위에 올라서
朗吟大雅篇 낭랑하게 대아편을 읊조리누나.²⁵⁾

夜深群生靜 밤 깊어 모든 사물 고요해질 때
帶月挾冊歸 달을 이고 책을 끼고 돌아오는데
無人如人見 아무도 없지만 남이 보는 듯
恭立整冠衣 공손히 서서는 의관 바룬다.²⁶⁾

이 네 수의 시는 모두 옥동이 지니고 있었던 수양 의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시이다. 이 시들의 특성은 제목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晨坐」와 「月夜」라는 제목에서 옥동이 위치한 시간과 공간이 그의 내면세계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은 옥동의 수양이 내면 지향성을 지니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 시 속에서 옥동은 철저한 心性 修養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확립해가는 구도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런 시 속에서 볼 수 있는 옥동의 의식세계는 淸淨함과 고요함 그 자체이고,

23) 「晨坐」, 『弘道先生遺稿』 卷 1.

24) 「月夜」, 『弘道先生遺稿』 卷 1.

25) 「月夜」, 『弘道先生遺稿』 卷 1.

26) 「月夜」, 『弘道先生遺稿』 卷 1.

이와 같은 의식세계를 시 속에 묘사하기 위해 옥동의 시는 완벽한 靜態의 상태로 그려진다. 움직임과 소리를 제거한 시는 한 폭의 그림으로 이 시간의 옥동을 그려내는 것이다.

山家犬吠白雲鄉 산 집에는 개 짓고 흰 구름 떠 있는 마을
一點輕鷗下夕陽 한 점 갈매기 가볍게 석양에 내려오네.
秋江日暮波紋滑 해 지는 가을 강에는 물결 번져 드는데
風送菱花滿地香 바람은 마름꽃 보내 땅 가득 향기롭네.²⁷⁾

心隨流水淡 마음은 흐르는 물 따라 담박하고
興與白雲長 흥은 흰 구름과 함께 길기만 한데
隨陰移席坐 그늘 따라 자리를 옮겨 앉으며
終日自清涼 온종일 스스로 청량함 속에 있네.²⁸⁾

이 두 수의 시는 모두 옥동이 그 자신의 생활공간을 대상으로 읊은 것이지만, 생활공간에 대한 묘사보다 옥동 개인의 내면정서 표출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 자연과 하나가 된 담담한 옥동의 내면을 그려내고 있다. 이 시들에서도 담담한 묘사 속에 은은한 흥을 드러내기 위하여 움직임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시와 비교해 확인할 수 있는 차이는 은은한 흥[幽興]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시들은 앞에서 살펴본 시와 달리 시가 수양의 적극적인 도구가 되었다거나 수양 의지를 표현하는 수단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 시들을 통해서도 옥동의 정화된 내면세계를 느낄 수 있다.

문학론에서, 또 창작론에서 유사한 틀 안에 놓여 있지만, 성호의 시세계는 시적 형상화의 방향에서 옥동과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옥동의

27) 『美陰』, 『弘道先生遺稿』 卷 1.

28) 『栗園晚興』, 『弘道先生遺稿』 卷 2.

시가 내면 속으로 침잠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성호의 시는 내면 세계를 외부로 드러내고 있어서 감정의 편폭이 보다 크게 느껴진다.

秋風秋雨盡蕭蕭	가을바람 가을비가 모두 쓸쓸하여서
催物催人暗自消	사물 사람 모두 다 몰래 절로 약해지네.
卻怪重衾茅屋底	괴이하구나 초가지붕 아래 두꺼운 이불 속에서
憂心偏學葉聲搖	근심스런 마음 유독 날리는 잎새 소리 배우는 게. ²⁹⁾

渚鷗猶欠通身白	물가 갈매기도 온몸 희지는 못하며
流水難逢徹底清	흐르는 물도 바닥이 맑은 경우는 드무네.
世事違心如許久	세상사 내 마음과 어긋난 지 오래니
偶然川上坐忘行	생각 없이 시냇가에 앉아 떠날 줄을 모르네.

水裏遊魚時出沼	물속의 물고기 때로 물 위로 나오고
雲邊飛鳥去成行	구름 가 나는 새 줄을 맞춰 가는데
無人不道佗閑意	한가한 뜻을 말하지 않는 이 없지만
也是紛紛逐利忙	그래놓고는 어지럽게 이익 좇느라 바쁘네. ³⁰⁾

窗外嚴風正怒號	창밖에 모진 바람 한창 울부짖는데
房中一燈惟孤懸	방 안에는 등불 하나 홀로 걸려 있네.
四鄰無喧萬慮空	사방 고요해 온갖 상념 사라지니
此時正好開陳篇	이때가 정녕 책 펴기 좋을 때라.
篇中不死聖賢心	책 속에는 죽지 않은 성현의 마음 있어
悅如提耳猶流傳	직접 전해 주시는 듯 귓가가 황홀하네.
我眼無珠看愈眩	내 눈에 구슬 없어 볼수록 모르겠으니
古人其奈今人蒙	옛사람이 지금 사람의 어리석음을 어이하리.
箋註留心十年久	전주에 마음을 둔 지 십 년이 되었지만

29) 『秋夜』, 『星湖先生全集』 卷 1.

30) 『有感 2首』, 『星湖先生全集』 卷 1.

至今擣埴迷西東 지금도 허둥지둥 동서 분간 못하네.
 況是乾坤正長夜 하물며 천지가 긴 어둠에 잠겼으니
 冠裳毀裂隨顛風 의관을 찢고서 사나운 바람 따라 가는 듯.
 土中有物埋未得 흙 속에 보물 있어도 묻혀버리려 못 얻지만
 精光上射爲長虹 밝은 광채 위로 쏘면 긴 무지개 되네.
 嗚呼此道今已矣 아아 이 도가 이제 그만일 뿐이니
 掩卷不語憂心忡 책 덮고 말없이 근심에 잠기노라.³¹⁾

看見兒童長 아이들 자라는 것 보고
 推知我朽衰 내 늙어감을 미루어 아네.
 慣經除夕會 제야의 모임을 익히 보아 왔으니
 衆樂獨含悲 남들 다 즐거운데 나 홀로 서글프네.

十五成丁壯 열다섯 살이면 장정이라는데
 年今倍過三 내 나이 이제 그 세 곱절이네.
 晚生兒漸大 늦둥이 아이가 점점 자라니
 聊以慰懷堪 이것 하나로 내 마음 위로가 되네.³²⁾

五十行年逼歲除 쉰 살 나이에 선달그믐 다가오니
 眼昏頭白守吾廬 침침한 눈 흰 머리로 내 집이나 지키네.
 藜羹飽吃無餘念 명이주 국이라도 배불리 먹으니 딴 생각 안나
 夜聚邨童看讀書 밤에 동네 아이 불러 글 읽는 것 본다네.³³⁾

앞서 미리 밝혔듯이 이 글에서 살펴본 성호의 시세계는 옥동과 확연한 차이를 보여준다. 옥동의 시와 성호의 시가 보여주는 차이는 두 사람의 문학론과 창작론이 같은 틀 속에 놓여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31) 「夜吟」, 『星湖先生全集』 卷 1.

32) 「除夜 2首」, 『星湖先生全集』 卷 2.

33) 「五十」, 『星湖先生全集』 卷2.

큰 차이를 가진다. 이와 같은 차이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현실에 대한 대응 자세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옥동의 시와 성호의 시가 창작된 시·공간적 유사성과 개인의 내면 정서를 읊어내고 있다는 내용상의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옥동의 시와 성호의 시가 보여주는 차이에 대해서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옥동의 시와 성호의 시가 이와 같이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두 사람의 시세계가 각자가 주장한 문학론과 창작론을 어기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주의가 필요하다. 옥동과 성호의 시가 보여주는 차이점은 문학 작품의 창작에서 본질적인 토대가 같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구현 양상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을 확장해본다면 동일한 家系의 구성원들이 지닐 수 있는 시세계의 실질적인 편폭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학론과 창작론에서 동일한 틀을 지니고 있었던 옥동과 성호의 시세계가 보여주는 구체적인 창작 양상의 차이는 두 사람의 사유세계가 지니고 있는 차이점이라기보다 사유세계의 현실적 적용의 차이로 보아야 할 듯하다. 그것은 성호 학문의 기초가 옥동에 의해 터를 닦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사유세계의 현실적 적용의 차이란 옥동과 성호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의식세계를 지니고 있었지만, 그 의식세계의 구체적 운용의 방향을 달리했다는 뜻이다. 옥동이 “隨時得宜”를 통한 時變과 通變을 추구하였고 “法古를 통한 創新”을 지향하였지만, 그가 가장 먼저 주목했던 것은 그 자신의 수양이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그의 시는 기본적으로 자기 내면화를 추구하여 靜態적이고 그림 같은 시를 그려내게 되는 것이다. 이와 달리 대상을 세밀하게 묘사하여 逼真한 형상을 재현하고 이를 통해 작가의 이미지나 감정을 진실하게 형상화하

고자 했던 성호의 경우 내면 감정의 외적 표출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 그것은 대상의 逼真한 묘사를 통해 작가의 감정을 진실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자기의 감정을 과장해서도 안 되지만 자신의 감정을 감추는 것 역시 僞善이나 虛僞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옥동과 성호의 시가 보여주는 실질적인 구현 양상의 차이를 인정한다면, 옥동과 성호의 시세계가 보여주는 양상의 차이가 갖는 의미를 어떻게 해명해 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남게 된다. 앞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옥동과 성호의 시세계는 기본적으로 같은 틀 속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그 틀이 현실적 상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각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보인다. 그것은 옥동과 성호의 시가 구체적인 형상화의 방향에서는 상당한 거리를 가지고 있지만, 시 속에 내재된 정서의 진실성에서 동일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실성을 유지한 채 현상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옥동은 내적 침잠을 선택했고, 성호는 외적 분출을 선택했다고 생각된다. 옥동과 성호의 시세계가 보여주는 양상의 차이에 찾을 수 있는 의미는 이와 같은 형상화 방향의 차이에서도 존재한다.

옥동과 성호 모두 문학의 본질적 기능으로 載道를 상징하고 있었다. 經典 中心의 古道를 追求한 옥동이나 道文一致의 經世文學論을 주장한 성호도 이 점에서는 동일하다. 창작론에서도 옥동이 “隨時得宜”를 통한 時變과 通變을 추구하고 “法古를 통한 創新”을 지향하였지만, 이는 대상을 세밀하게 묘사하여 逼真한 형상을 재현하고 이를 통해 작가의 이미지나 감정을 진실하게 형상화하고자 한 성호와 그리 큰 차이를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 동일성이 시문학의 창작이라는 실제적인 상황에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은 문학론과 창작론을 적용하는 방법의 차이의 의미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동일 家系와 학문 집단이 지니는 공통적 속성과 개별적 특성의 차이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V. 結論

옥동과 성호는 동일 가계 안에서 비슷한 시기를 살아갔던 형제들이다. 유사한 정치적 상황 속에 놓여 있었고, 동일한 학문 전통을 授受받아 각자의 능력을 더해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갔다. 이들 사이에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들의 교유관계나 사회적 입장 역시 유사한 지점에 놓여 있었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점에서 이들의 의식세계는 동일한 根底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이들의 개인적인 삶의 역정이 보여주는 구체적 양상은 각기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문학과 창작론이 아무리 동일한 틀 속에 놓여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들에 의해 형상화된 시세계는 구체적인 양상에서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다.

옥동과 성호의 문학과 창작론의 공통점은 이들 가문의 문학 경향, 즉 家系 내에서 전해진 家學의 특성이라고 간주할 수 있고, 실질적인 창작 양상의 차이는 개인적인 삶의 역정이 지니는 간극에 바탕을 한 것으로, 개인적 차원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동질성과 개별성의 간극에 대한 해명과 의미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은 앞으로 보다 더 많은 작품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 동일한 가계 내에서 학문적 수수관계를 가졌고 비슷한 삶의 역정들을 거쳤다는 점에서 이들의 시는 본질적으로 공통점을 지닐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본질적인 공통점은 개인적인 학습의 과정과 개별적인 삶의 역정 속에서 현실에 대해 각기 다른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옥동과 성호의 시세계에서 동질성과 변별성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논의를 보다 확대해 본다면 조선 후기 당대 동일 家系 안에서 창작된 문학 작품들이 지니는 성격상의 유사성과 개별적 특수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해명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자료

李 澈, 『弘道先生遺稿』

李 瀼, 『星湖僊說』

李 瀼, 『星湖全集』

李 潛, 『剡溪先生遺稿』 乾坤 2책본 · 『剡溪先生遺稿』 1책본
『驪江世乘』

『朝鮮王朝實錄』

驪州李氏歷代人物誌 刊行委員會, 『驪州李氏歷代人物誌』, 1997.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刊, 『近畿實學淵源諸賢集』, 2002.

단행본

김남형, 『성호이의 시선』, 예문서원, 2004. 222~247면

安大會, 『18세기 한국 한시사 연구』, 소명출판, 1999. 14~55면.

尹載煥, 『매산 이하진의 삶과 문학 그리고 성호학의 형성』, 문예원, 2010. 32~379면.

논문

宋 篤鎬, 「朝鮮朝 後期四家詩에 있어서 實學思想의 檢討」, 『淵民 李家源先生 七秩 頌壽紀念論叢』, 정음사, 1987. 74면.

윤재환, 「玉洞 李澈의 金剛山 紀行詩文 研究 - 「東遊錄」과 「東遊篇」을 中心으로 -」, 『大東漢文學』 21, 2004. 203~237면

윤재환, 「玉洞 李澈의 文學觀 研究」, 『東方漢文學』 27, 동방한문학회, 2004. 217~257면.

윤재환, 「玉洞 李澈의 詩에 나타난 精神世界」, 『韓國漢詩研究』 13, 한국한시학회, 2005. 287~324면.

윤재환, 「梅山과 玉洞의 金강산 기행시문 비교 연구 - 「金剛途路記」와 「東遊錄」, 「東遊篇」을 중심으로 -」, 『東洋學』 38,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5. 89~112면

윤재환, 「시론과 시세계의 상관관계-성호와 다산의 전가시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52집, 한민족어문학회, 2008. 194~195면.

Abstract

An Aspect of Seongho Family's Poetry World through a
Comparison between Okdong Lee Seo and Seongho Lee Ik

Yoon, Jae-hwan

Maesan Lee Hajin, the father of Okdong Lee Seo(1662~1723, Hyeonjong 3~Gyeongjong 3) and Seongho Lee Ik(1681~1763, Sukjong 7~Yeongjo 39), had two wives in sequence. The first wife was honored as Jeongbuin, and her father was a Yusu who was Lee Husan of Yongin Lee family. Maesan's second wife was a daughter of Gweon Daehu of Andong Gweon family. Maesan had five sons: three from his first wife, and two from his second wife. Okdong Lee Seo was the third son from Maesan's first wife, and Seongho Lee Ik was the second son from the second wife. Among Maesan's all five sons, Okdong was the third and Seongho the fifth; and between the two was the age difference of 19 years. The age difference was relatively big for sibling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was not only distant but quite close as far as their age difference.

While Okdong lived together with his father Maesan for 20 years, Seongho could spend merely 8 months with his father and it was even during Maesan's exile. Indeed, Seongho could not inherit the academic tradition from his father but studied under his brothers. Seongho practiced his study under Seomgye Lee Jam, his second brother, and Okdong Lee Seo, his third brother; between the two Okdong influenced Seongho much more. However, Okdong was a stimulative turning point in his family's academic tradition. Before Okdong his family's academic tradition had been famous for its literary height, but such a tradition was shifted toward the Confucian classical study by Okdong. It seems that Okdong transmitted such a family's academic tradition shifted from literature to the Confucian classical study to Seongho.

Nevertheless, although Okdong shifted his family's academic tradition, the

tradition accumulated for many generations was hard to transformed at once. This article pays attention to it and is arranged. The forte of Seongho's family tradition was in the literature. Through understanding that Hyehwan and Geumdae, both of whom got most immensely influenced from Seongho, attained their fame by their literature, it can be thought that a mainstream of the academic tradition of Seongho's family was the literature. Furthermore, it can be analogized that within the literary tradition lay the family members's own common denominator. This article to search for the common denominator among the literatures of Seongho's family and to exteriorize their literary concomitant features. Throughout the process, this study attempts to search for the literary characteristics of Seongho's family, and based on it to exteriorize the relationship between an individual and the academic tradition of his family.

Key Words : Okdong Lee Seo, Seongho Lee Ik, literary theory, literary creation theory, poetry world, Seongho's family

윤재환

단국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448-70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031-8005-3019 / 010-9871-1037

inse-yoon@hanmail.net

이 논문은 2012년 11월 14일 투고되어 2012년 12월 1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2년 12월 11일 게재 확정됨.
